

칼빈주의 바로 알기 14  
칼빈주의 편견을 제거하고  
로마서 9-11장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롬11:1-5, 11

지금까지 13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Hyper Calvinism

극단적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무조건적인 선택, 2중 예정

이런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칼빈주의자들은 늘 로마서 9장을 사용한다.

그러나 로마서 9-11장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8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진다. 9-11장은 괄호 삽입 장

사도 바울은 9-11을 삽입할 수밖에 없었다. 왜? 유대인들 문제, 유대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 간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약속, 어떻게 되는가?  
롬9-11의 주제: 육적 이스라엘(아브라함의 씨)은 어떻게 되는가?(롬9:3-4; 10:1, 21; 11:1-2,  
26, 28)

카톨릭 교회와 다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

어거스틴/칼빈주의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무천년주의를 따르므로 9-11  
장을 이상하게 해석함,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곧 왕국이고 예수님이 영적으  
로 다스린다고 주장한다(영해).

이런 주장들로써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를 이룰 수 없다. 롬9-11이 해답을 준다.

생각해 볼 문제점

1.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은 어찌 되었는가?
2.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었는가?
3.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로 이방인들과 연계되어 있는가?
4.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이 났는가? 그러면 1948년 5월은 무엇인가?
5. 이스라엘(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 남아 있는가?

9-11장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다.

다시 말한다. 9-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개개인의 구원 문제는 1-8장에 나와 있다.

가장 중요한 것: 11장 28절을 기억하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복음과 선택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고도 복음의 원수(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11장의 주제는 절대로 개인의 예정과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다.

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내신 뒤 대다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따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배척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세우려 하면서 자기들의 선민 선택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 그들은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10장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하나님의 초청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한다(무조건 선택을 말한다)).

11장 불신을 통한 이스라엘의 넘어짐, 믿음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때  
즉 7년 환난기 후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통치 계획이다.

## 로마서 9장

다 같이 문맥에 따라 읽어보자

- 1-4, 이스라엘로 인한 바울의 근심
- 6-9, 문맥을 잘 보십시오. 1-9절이 복음에 대해 단 한 마디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마디라도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약들, 약속들,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특별한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6-9,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바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다수 불신, 이삭과 이스마엘,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메시아를 내는 민족의 선택(7절)
- 10-13, 야곱과 에서의 예, 메시아 내는 민족, 둘 다 개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야곱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실 권리가 있다. 메시아를 낼 민족으로 삼기 위하여,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롬9장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 선택  
개인의 구원은 다른 이야기, 야곱, 이스마엘, 에돔, 이집트 믿으면 구원, 불신 지옥
- 14-16, 하나님이 마음대로 민족을 택하시는 이 일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는 민족이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개인 구원은 이와는 다른 일이다.
- 17-18.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라오를 택하신 이유 17,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은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문맥입니다.
- 19-21, 하나님의 선민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 역시 개인의 구원 선택 이야기 아니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19절), 이것은 마치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맥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면 성경은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37), 이스라엘의 거역  
개인의 거역과 민족의 거역 문제를 살펴보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왕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롯이 야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지만 민족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족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민족에 속한 개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고 거절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문맥입니다.
- 22-24, 이스라엘에 대해 오래 참으시다(22) 이제는 교회를 사용하신다(23-24).
- 25-26, 신약 시대 교회, 이방인 중심  
이스라엘은 미래가 예정된 민족입니다. 이방인도 미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가 되자 미래가 예정된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10:32, 교회 시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이 교회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도록 무조건적으로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미래가 예정된 다른 민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예정된 미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에 예정된 미래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아 영적으로 출생했다면 교회에 예정된 미래가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 유대인, 이방인(고전10:32), 이 세 민족은 각기 예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문맥이고 이것은 성경의 어디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9. 27-29, 이스라엘 가운데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 이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소수이다.

28절, 단축되다. 속히 이루어진다. 유대와 이스라엘 멸망 및 포로 생활, 잠시 후 티투스의 예루살렘 파괴, 대다수 유대인 멸망, 오직 소수만 남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선택입니다. 즉 여기의 선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것입니다.

10. 30-33, 이렇게 된 이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려 했기 때문(32)

11. 로마서 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난기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환란기 끝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의 국가를 머리 국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유대인들에게 올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지만 민족의 운명(혹은 민족의 사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해석만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로마서 10장

10장은 9장 뒷부분 설명, 32절,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하려다가 구원받는 자들이 적게 됨

1. 1-4,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 4절
2. 5-8, 율법의 의, 무언가 애를 써서 행위로 큰일을 하려는 것
3. 9-13, 그리스도의 의, 믿어야 한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 12-13, 선택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4. 14-15, 이스라엘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즉 선택에 신경을 쓰지 말고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전해야 한다.
5. 16-21, 복음이 선포되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듣고도(18) 하루 종일 불순종한다(21): 구약 시대 내내 불순종, 그러나 너희 교회를 택한 이유: 이스라엘을 지극하려고(19). 그들은 듣고 믿었다.

###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1. 1-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은 믿는 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도, 소수의 이 남은 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5). 미리 아심, 예정 선택(예지 예정 선택), 이들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2. 7-10, 그들의 대다수는 지금까지 눈먼 상태이다.
3. 11-12, 그들의 걸려 넘어짐은 쓰러짐이 아니다

-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제쳐진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잠시 불순중
4. 13-14, 이방인들의 사도,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그들 중 일부 구원, 바울이 원하던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배교했지만 그들을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해 질투를 느껴 결국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5. 15-18, 이스라엘이 근본이고 너희는 접붙여졌다, 그 올리브 나무(이스라엘)는 아직 살이 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게 아닙니다.
  6. 19-22, 너희는 조심하라. 교만히 굴지 말고,  
19-22절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부분의 말씀들을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 구절(22절)을 개인에게 적용함으로써 칼빈주의자들과 정확히 같은 부분에서 오류에 빠졌습니다.  
여기의 문맥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중 몇 개의 가지가 꺾인 것처럼 그들도 꺾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공짜로 나눠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7. 23-24, 이스라엘 그들도 본래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다. 이것은 쉬운 일이다.
  8. 25-27, 그들의 최종 구원, 이것은 신비이다(2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흠쳐다가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민족적인 구원, 26절의 야곱 습12-14를 보라. 마23: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9. 28-29, 대단히 중요함, 민족적 선택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하나님과 원수이다.  
민족적 선택,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개인 선택, 복음의 원수 불가능  
선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10. 30-32, 그들도 결국 궁핍을 얻는다.
  11. 33-36,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다. 인류 역사 경영 계획  
이스라엘 구약, 예수님,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  
그들의 불순중, 이방인 구원의 길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결국 세상 끝에 이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개인들을 다루시며 구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시고 이방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을 모아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을 구하고 민족들의 머리로 삼기 위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결론: 칼빈과 어저스틴, 맥아더, 파이퍼, 스프로울, 로슨 등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자기 생각을 해석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롬9-11장은 이스라엘 이야기  
단 1초도 칼빈주의 해석에 빠지면 안 된다.